

#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 교회의 회복

성경: 마 16:18, 18:17, 엡 1:22-23, 3:9-11, 4:16, 롬 14:17

I. 교회의 회복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본래 무언가가 있었지만 상실되거나 손상되거나 잘못 이해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마 16:18.

- A. 교회는 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하락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따라 회복될 필요가 있다 — 엡 1:4-5, 11, 22-23, 2:15, 3:9-11.
- B. 교회에 관한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황이나 전통적인 실행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 — 엡 3:21, 5:23-27, 29, 32.
- C.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다 — 엡 3:9-11, 5:25.
  - 1.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고, 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며, 영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 고전 10:32, 엡 1:3-14.
  - 2.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위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 곧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다 — 딤후 3:15-16.
  - 3.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 엡 1:22-23.
  - 4.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 곧 그분의 배필이다 — 엡 5:23-27.
  - 5. 교회는 새사람이다 — 엡 2:15.
  - 6. 교회는 우주적으로는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로 존재하지만, 지방적으로는 많은 지방 교회들로 표현된다 — 엡 1:22-23, 계 1:4상, 11.

II. 교회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것으로 예표된다 — 스 1:3-11.

- A.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의 후반부로 예표되듯이, 회복은 바빌론, 곧 포로로 붙잡아 가는 분열적인 터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의 회복은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포로로 붙잡아 가는 분열적인 터로부터 돌아오는 것과 관련된다 — 스 1:11, 계 17:5.
- B.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은 바빌론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터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였다 — 신 12:5.
- C.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바빌론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그릇을 함께 가지고 왔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한다 — 스 1:5-11.

- D. 교회의 회복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에 의해 예표된다. 따라서 회복은 다만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이다 — 스 1:3.
- E. 교회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예표된다 — 느 2:11, 17.

### III. 교회의 회복은 비록 '회복'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신약에 계시되어 있다.

- A. 우리는 종파나 교파와 같이 분열적인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 딤후 3:10.
- B. 교회의 회복은 큰 집, 곧 변절한 기독교계에 있는 천한 그릇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 딤후 2:20-21.
- C.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그리스도의 신격과 신성한 잉태에 의한 육체 되심에 관한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 요이 9-11.
- D. 우리는 종교적인 큰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 계 18:4.

### IV. 우리는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한다.

- A.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분열적이고 변절한 터에서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 터가 삼일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진리들로부터 빛나간 것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 1. 우리는 양태론과 삼신론이라는 이단들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삼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계시를 붙잡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진리는 두 방면, 곧 하나의 방면과 셋의 방면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일, 셋-하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기 때문이다 — 마 28:19, 고후 13:14.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모든 이단적인 가르침들로부터 회복되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하신 사람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심을 시인해야 한다 — 요일 4:2-3, 14-15, 골 1:15-19, 2:17.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유일하고 순수한 터와 그 진리들로 되돌아와야 한다.
  - 1. 우리는 신약의 믿음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 유 3, 벵후 1:1, 딤후 1:3-4.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관한 진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 요 1:1, 14, 18, 딤후 3:15-16, 1:15, 고전 15:1-4.
  - 3. 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인격과 분배에 관한 진리로 회복될 것을 요구한다 — 마 28:19, 요 16:13-14, 고후 13:14.
  - 4. 교회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의 회복과 관련된다.
    - a.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유기체이다 — 엡 1:22-23.
    - b.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상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 고전 12:12.
  - 5. 교회의 우주적인 방면과 지방적인 방면에 관한 진리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
    - a. 우주적인 방면에서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이다 — 마 16:18.

- b. 지방적인 방면에서 교회는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서 많은 지방들에서 표현된다 — 마 18:17, 고전 1:2.
- C. 교회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다 — 엡 4:16.
1. 이것은 에스라의 인도 직분 아래서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예표되었다.
  2.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재건하고 있다 — 엡 2:21-22, 고전 3:9, 16-17.
  3. 원수가 교회에 입히는 모든 손상은 주님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대할 기회를 드린다 — 요 2:19-21.
- D. 교회의 회복은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다. 교회생활의 실재는 왕국이다 — 롬 12:5, 14:17.
1.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왕국은 오늘날의 교회생활이다.
  2. 교회의 생활로서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화평과 성령 안의 기쁨이다 — 롬 14:17.
  3.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기에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예표된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이다.
  4. 교회의 회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유일하고 순수한 터로 회복됨

#### 교회, 그리스도의 몸, 단체적인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 있다. 몸은 머리의 충만이요, 그 충만은 머리의 표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골 1:18),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 곧 비밀하고도 우주적인 위대한 한 사람이며,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고, 같은 위치와 권위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하늘에 앉아 계신 것처럼(엡 1:20-21), 교회도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2:6).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마 28:18), 교회도 그분의 권위에 참여한다(눅 10:19). 오늘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으며, 장래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골 3:3-4).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교회의 어떠함이요, 교회가 소유한 것이요, 교회가 있는 것이요, 교회가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과 내용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체요 표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받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 표현된다. 그 둘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같이 하나로 연합되었고 연결되었는데, 그리스도는 그 내적 내용이 되며 교회는 그 외적인 표현이 된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계시한다. 문법적으로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과 동격이다. 이것은 몸이 그 충만이요, 그 충만이 곧 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은 우주적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시다(엡 3:18). 그분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바로 우주의 크기이시다. 이같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결국 그분의 충만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상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2:12)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그리스도이다. 헬라이어 원문에서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인데, 이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모든 믿는 이들을 지체들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었으며, 그분의 생명과 요소로 조성되어서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 한 유기체가 된다. 그러므로 그분은 머리이실 뿐 아니라 몸이시기도 하다. 우리의 육신적인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 교회의 우주적인 면과 지방적인 면

교회의 우주적인 면과 지방적인 면에 관한 진리도 역시 회복되어야 한다.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상실되었고 심지어 없는 것처럼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두 방면에 관한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우주적인 면에서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이다. 교회의 이 방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에 의해 계시되었다. 여기서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계시된 것은 우주 가운데 주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한 우주적인 교회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가리키는 ‘이 반석’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 우주적인 교회의 건축은 전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투명한 계시 위에 이루어진다. 이 계시는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바로 중심이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지방에 있는 교회를 계시한다. 이 구절에 언급된 교회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우주적인 교회로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지방에 있는 교회로만 가져갈 수 있다.

지방적인 면에서 교회는 많은 지방에서 지방적인 교회들로 표현된다. 땅 위에 많은 곳에서 표현된 우주적인 한 교회는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된다. 한 지방에서의 교회의 표현은 그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이다. 지방 교회들이 없다면 우주적인 교회의 실행성과 사실성은 없을 것이다. 우주적인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현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문안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우주적인 면과 지방적인 면을 둘 다 본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또한 지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우주적인 면과 지방적인 면을 둘 다 갖는다. 우주적인 면은 교회의 조성, 본성,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고, 반면에 지방적인 면은 교회의 표현과 실행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의 지방적인 면만 있고 교회의 하나님께 속한 면이 없다면, 우리는 내적인 실재는 없이 외적인 형식만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의 우주적인 면만 있고 특정 지방 안에 있는 교회의 지방적인 면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실재는 갖되 실행성은 갖지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으로 조성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어떤 특정 지방에서 표현된다. 우주적인 교회는 특정 지방들에서 표현되며 실행된다.

##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

교회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 있던 성전의 재건축으로 예표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생활을 재건축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한다. 12절은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하게 하려는 것(unto)’은 ‘...을 목적으로, ...을 위해, ...을 하기 위해’를 의미한다. 11절에서 은사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사역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이다. 이것이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유일한 사역이다(고후 4:1, 딤후 1:12). 더욱이 12절의 문법 구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곧 ‘사역의 일’이다. 11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사역의 일로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11절에 있는 네 가지 특별한 은사들, 곧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목자 및 교사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이들 특별한 지체들은 성도들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 먼저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목자 및 교사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장비시킨다. 이것은 그들이 성도들을 건축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다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하는 지체들이 된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특별한 은사들에 의해 직접 건축되지 않고, 몸의 모든 지체들에 의해 직접 건축된다는 것을 본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직자-평신도 제도라는 큰 이단을 피할 것이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도 없고 평신도도 없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건축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는 실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인데 비해, 13절에 있는 하나는 실행성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미 실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하나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실행성 안에서 생활의 하나에 이를 때까지 전진해야 한다. 하나의 이 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온전히 아는 지식이다.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구속의 일 같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의 체험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인식에 있어서 견고할 것이며, 더욱더 우리는 분열을 야기하는 모든 사소하고 낮은 교리적인 관념들을 떨쳐 버릴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실행적인 하나에 도달하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실행적인 하나를 위해서는 이러한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인데(엡 1:23), 그것은 분량이 있는 신장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도 역시 실행적인 하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실재의 하나에서 실행적인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이 구절에 언급된 세 가지 것들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곧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인 몸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 몸은 신장(身長)을 갖고 있는데, 이 신장에는 어떤 분량이 있다. 그러므로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건축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몸의 건축의 온전한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고 생명의 성숙이 없는 믿는 이들을 언급하는 것이다(고전 3:1).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증가되게 하는 것이다.

15절의 ‘머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자라는 것은 머리 아래 몸 안에서 지체들로서 자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머리 안으로 자라려면 확실히 우리는 몸 안에 있어야 한다.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한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몸 안에서의 우리의 기능은 그분에게서 나와 발휘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머리에게서 나온 그 무엇을 갖게 된다.

이 구절에서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는 11절에 언급된 네 가지 특별한 은사들을 가리킨다. ‘공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앞에 있는 관사는 강조형이다. 그것은 그 공급이 어떤 특정한 공급, 곧 그리스도의 공급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목자 및 교사들은 ‘그’ 공급, 즉 특정한 공급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건축된다. 여기서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가리킨다. 비록 특별한 은사들이 ‘그’ 공급을 갖고 있지만, 그 몸은 이 네 가지 특별한 은사들에 의해 직접 건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몸은 몸의 모든 지체들에 의해 직접 건축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조성의 문제이다. 그 몸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요소로 조성된 유기적인 하나의 실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그런 조성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게 필요한 것은 조적이 아니고 유일한 조성체, 즉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우리 안으로 짜인 신성한 요소로 조성된 조성체이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면 될수록 더욱더 신성한 요소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든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삼 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사십육 년이나 걸려 건축된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삼 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멸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수가 파괴한 것을 주님은 삼 일 만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에 의해 파괴된 것을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건축하셨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우리는 원수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손상시키고 멸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부활 안에서, 부활에 의해서 일으키실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수가 손상을 일으킨 후에 주님은 부활 안에서 보다 큰 규모로 건축물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장막과 성전이였다. 그 둘 다 하나님의 거처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멸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사탄이 주님의 육신적인 몸을 십자가 위에서 멸한 후, 그분의 몸은 무덤에 떨어져 그곳에 안치되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분 스스로 그분의

죽고 매장된 몸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파괴된 몸은 작고 연약했지만, 부활 안의 그리스도의 몸은 광대하고 강력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몸, 즉 성전을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으켜 세우셨음을 의미한다. 원수가 십자가로 헐었던 몸은 단지 예수님의 몸이었다. 부활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은 그분 자신의 몸이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기도 했다(벧전 1:3, 엡 2:6).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던 날부터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대해 오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오늘 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얼마나 광대한 몸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광대함은 측량할 수가 없다. 주님은 부활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계신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것을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부활 안에서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딤후 3:15, 벧전 2:5, 고전 3:9, 엡 2:21-22).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삼 일’ 안에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의 과정 아래서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몸의 커다란 부분이 일으켜졌지만, 아직 일으켜지지 않은 어떤 지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은 여전히 부활의 과정 중에 있다.

원수가 교회에 준 모든 손상은 주님으로 하여금 부활 안에서 그분의 몸을 확장시킬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사탄은 결코 주 예수님을 패배시킬 수가 없다. 음부의 문은 결코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마 16:18). 교회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라고 있다. 원수가 그것을 헐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 자신이 이기실 뿐 아니라 그분의 몸 곧 성전인 교회도 이기고 있음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 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지방에 있는 단체적인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반면,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영적인 성전은 땅에서는 여러 지방들에 그 표현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표현이 그 지방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건축물(고전 3:9)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건축자들인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무가치한 재료들로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과 경륜에 일치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들로 건축하기를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다. 거기서 바울은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거처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분의 권속, 그분의 가정이기도 하다. 구약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분리된 것들이었지만, 신약의 완성 안에서 거처와 가족은 하나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또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이 교회는 바로 육체 안에서 확장된 단체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교회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연장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경건의 큰 비밀이다.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교회로부터 살아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연장이요 확대요 증가요 확장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신약의 육체 되심의 원칙에 따라 보다 광대한 방식으로 육체로 나타나신다. *(신약의 결론, 교회, 472-481쪽)*